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8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9월 17일 (음력 8월 8일) 월요일

## 공직사회 내부 갑질-폭언 행위에 '속수무책'

공직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갑(甲)질 행위와 언어폭력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에 비밀 보장도 허술해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통한 대대적인 실태 파악과 강력한 인사상 페널티, 2차 피해 방지책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 공무원 조직 안에서 언어폭력과 갑질 행위가 지난 2년 간 수 십건 발생했고 이 중 최소 4건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1건은 시 본청, 나머지 3건은 사업소에서 발생했고 가해자는 대부분 간부공무원이고 피해자는 주로 여성공무원들이다.

육성과 폭언은 기본이고 입에 담기 힘든 여성 비하 발언, "이런 XX, 그냥 집에 나가라", "넌 그런 일이나 하라고 여기 온 것이다"는 식의 인격모독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노조는 밝혔다. 일부 피해자는 조직 내에서 '은따(은근히 따돌림)'로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인수 위원장은 "지속적인 항의와 건의로 3건은 개선됐으나, 1건은 당사자의 사회와 재발방지 약속에도 불구,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1건은 시립도서관 간부 A씨와

### 인사페널티 등 처벌 강화·2차 피해 방지책 시급

### 전수조사·내부고발 시스템 정비 등도 발등의 불

관련된 것으로, A씨는 지난해 4월 노조와 피해 직원에게 "잘못했고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습관적으로 막말과 갑질을 반복해오다 최근 시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직원들이 작성한 '갑질 파일'에 따르면 시립도서관은 지난 2월 직원들에게 부서 운영비로 설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관례대로 3만원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지만 A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달라고 요구해 10만원권 상품권을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 지난 4월 '광주시장상(賞)'을 받고 싶다며 직원들에게 단독추천을 요구해 수상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임신한 직원과 강사에게 막말을 하거나 장애인직원을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출근길 접촉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한 직원은 정비 문제 등을 놓고 A씨로부터 폭언에 시달리다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3년과 2014년, 정임 근무지에서도 폭언을 반복해 직원 10여명이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연관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업무 미 숙자들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뜻이 왜곡된 것 같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에서는 지난 4월에도 도시재생국 소속 일부 직원이 간부로부터 일상적으로 성희롱과 폭언을 당해 왔고, 직장 내 갑질도 심각하다며 피해를 호소해 감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광주 모 보건소장의 비인격적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 33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소장은 울초부터 수 개월간 보건지소 교육장에서 친구사이인 의대 동기 5명과 일명 '라인댄스'를 춘 사실도 드러났다. 노조는 보건소장이 지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갑질 청산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 시도 갑질 관행 근절에 나서고 수 차례 관

련 감사도 진행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악습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공직 내부에서는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갑질행위자 무관용 파면' 등 강력한 인사상 불이익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 비밀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2차 피해에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시 산하기관 한 여직원은 "일벌백계식 처벌이 없다 보니 감사나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비밀보장이 잘 되지 않아 고발문이 게재되면 몇일 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누구라더라는 식의 일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실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원은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인사상 조치는 가법(可罰)만 하고 비밀보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당 기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는 구조다보니 '용기있는 고발'이 쉽지 않고 2차 피해도 무방비"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전 직원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익명성이 보장되는 내부고발 시스템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망발

정중준의회백명철 의원이 회의 도중 여성비하 발언과 여성 공무원 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여성단체 회원들이 의원직제명을 추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7월12일 제40회 정중준의회의원회 의원직제명추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백 의원이 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에 대해 기술센터 소장에게 '남자 공무원으로 바꾸든 정보해야 한다'며 '소장역량이 부족하다'며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여성보다 남성 사무관남성 지도자가 훨씬 더 일을 잘할거라고 생각한다'는 등 성차별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인 백 의원은 여성비하 발언으로 '공직생활 오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대신 조건으로 팔리던 여자가 됐든 일본여자가 됐든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만 데리고 와라'고도 말했다. 한 여성단체 회원은 '회의는 윤리특위에 즉각 회부해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중준 정중준수와 시민 등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백광철



시민들



정중준

## 전남 노사민정 산업평화실천 선언



### 화순서 이신원 의장 등 800여 명 참석 전남 행복시대 위해 고용환경 조성키로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가 주관한 전남지역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대회가 15일 화순 민연산 제2주차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전남지역 노사민정이 고용과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숙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일자리 창출로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 노동자들의 삶이 바뀌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신원 한국노총 전남본부 의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만수 전남경영지총협회장, 김명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이송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회장 등 각 지역 노사 대표자 800여 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산업평화 실천대회를 통해 전남 노사민정 모두는 일하기 좋은 전남, 기업하기 좋은 전남, 잘사는 전남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남규 기자

이날 선언문에서 근로자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원가절감과 생산 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사용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 민간단체는 소비자 상담 및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하여 전남 행복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신원 한국노총전남본부 의장은 대회사로 통해 "전남이 가장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주목받기까지는 노동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며 "전국 어느 곳 보다 전남도가 기업하기 제일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전남 노사민정이 조금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격려사에서 "민선 7기 들어 59개 기업이 3조 5천여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00여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룬 워라벨이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산업평화 실천행사에 참석한 노사민정 관계자 등은 큰재 주차장에서 전망대를 거쳐 민연산 정상까지 왕복하면서 소통을 통한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기찬랜드

2018 함께 오세요! 氣의고장 영암으로!

# 영암 방문의날

왕인문화축제부터 월출산 국화축제까지  
세계적 관광객 여러분을 氣의고장 영암으로 초청합니다

- 4년연속 국가축제 지정
- 왕인문화축제
- 2백만 도민 화합과 전진
-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 지상 최대 항공 레저쇼
-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 호남의 소금강 월출산

후원